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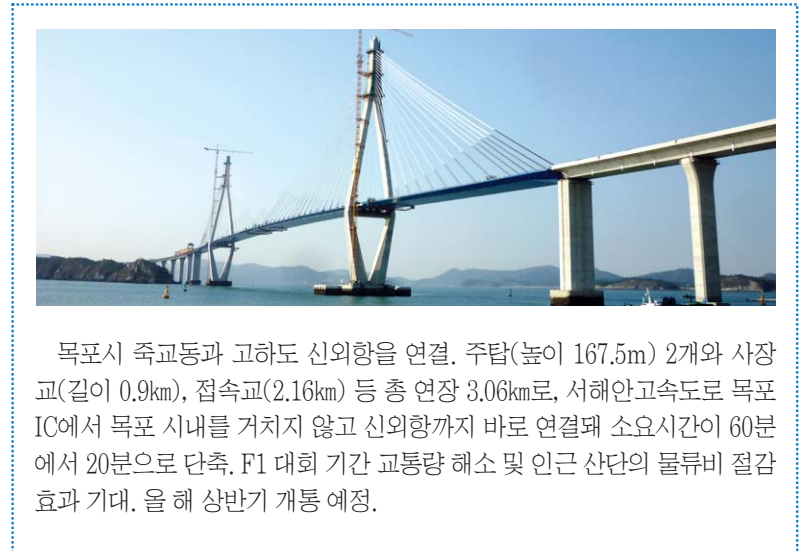
# 물과 소통하는 연륙·연도교 전남 섬, 세상으로 뻗어간다

◆ 고흥군 영남면 주민들은 오늘 12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고흥 영남면 우두마을과 여수 적금을 잇는 길이 1340m 연륙교(漣陸橋)가 완공되면 2시간 가까이 걸리던 여수까지 승용차로 10분 만에 건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지난해 입자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선착장에 내걸린 '수년째 말로만, 선거때만 차고, 입자도민을 우롱한다.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님, 재발 입자도 연륙교 착공하고 입자도 땅 밟으세요'라는 플래카드다. '입자도 소원은 연륙이냐! 입자도 발전, 복지, 모든 행복도 연륙이 시작이다!'는 문구처럼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연륙교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올 사업 예산에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을 잇는 연륙교 건설을 위해 20여원을 반영하자 이 플래카드를 떼어냈다.

육지에 가려면 배편이 전부였던 섬 사람들은 물론 섬의 대상이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도시와 달리, 사방을 둘러봐도 바다 외에는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섬에서 수십년동안 시간이 멈춘바탕 토도 고립과 단절의 세월을 보내왔던 탓에 물과 향한 그리움도 수 밖에 없다. 자신들은 섬에 태들 물으면서도 두 집, 세 집 살림 전셋돈을 마련해 자식들을 물로 유학 보내는 것도 자신들이 맞바 치질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풀려주지 않고 싶어서다.

## 목포대교



목포시 죽곡동과 고하도 신의왕도를 연결. 주탑(높이 167.5m) 2개와 사장교(길이 0.9km), 접속교(2.16km) 등 총 연장 3.066km로, 사해안고속도로 목포IC에서 목포 시내를 거치지 않고 신의왕까지 바로 연결해 소요시간이 60분에서 20분으로 단축. F1 대회 기간 교통량 감소 및 인근 산단의 불투명해 집합 효과 기대. 올 해 상반기 개통 예정.

저 건너는 다리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여척스럽게 뿔뿔이 찢어진 세월만큼이나 육지와 소통했으면 하는 갈망이다.

연륙·연도교 사업은 12조원이 투입되는 전남의 최대 프로젝트다.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던 2219개(유인도 286개·무인도 1933개)의 섬을 '버려진 땅'에서 '보물섬'으로 바꿔 세계적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남 섬 관광자원화 사업'의 필수 '하드웨어'이기도 하다.

2020년까지 103개(119.14km)의 연륙·연도교를 건설. 사남해안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이 야심찬 구상은 디지털만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103개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 중 40개(19.5km-1조2080억원)가 완료됐고 27개(44.9km-5조6673억)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36개(54.7km-5조3294억원)는 첫 삽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신안에 26개의 연륙·연도교(39km-3조2165억원)를 건설하는 계획은 7개가 완공. 전남도 풍경을 바꾸고 있다. 다리가 높은 층도와 연도 신지 명사십리의 경우 육지와와 교통이 수월해진 것은 물론 농수산물의 유통도 활발해지고, 외지인들의 발걸음도 찾아 섬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연중 외지 관광객들이 넘쳐나면서 주민 삶의 쾌감이 달라지고 있다.

여수~ 고흥반도를 연구고, 사창교, 아치고, 거더교 등 11개의 대체용 다리(8.65km-1조905억)로 연결. '세계 최대의 교량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와 화정면 백야리를 연결하는 길이 325m, 폭 12m 규모의 백야대교는 준공되면서 첫 단추는 꿰었다.

고흥 영남에서 적금도를 거쳐 남도~둔병도~조발도~화양면까지 연결하는 화양~적금간 4개 연도교 공사도 올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 다리가 완성되는 2019년이면 고흥 영남에서 여수까지 거리(110~200km)·시간(1시간22분~15분)이 단축되면서 여수와 고흥 반도는 한층 가까워지게 된다.

전력구거기로 취급받던 섬들이 다리로 이어지면서 사남해안 다도해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해상교량의 아름다움을 갖춘 세계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경제성'에만 치중하며 지원에 인색한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에 전남도의 연륙·연도교 구상의 진척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다. 신안군 화의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총연장 1.3km-583억)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비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급기야 전남도가 지방채 30여억원을 발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기도 한 상황이다.

엘악 지리적 여건을 뒤집어 바닷길 상륙도로 삼아 21세기 등하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남의 구상에 차질이 빚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필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세계 최고 높이 이순신대교 주탑에서 내려다본 전경

광양시 중마동~묘도~여수시 월내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9.58km의 현수교로 '최초' '최고' 높이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실제에서 시공까지 순수 국산기술로 이뤄진 국내 최초 현수교. 양쪽 주탑의 높이는 세계 최고인 270m. 바다에서 2만 8천여미터까지 높이 85m에 달하고 선박 운항 가능 폭도 국내 최장인 1310m. 길이 440m의 1만8000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만8000개,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2개까지 동시에 왕래가 가능하다. 경간장 주탑~주탑간 길이가 1545m에 달해 세계 네번째. /김필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새천년대교

신안군 압해도와 압해도를 잇는 총 연장 7.22km의 해상교량. 세계 최초로 3개 주탑으로 이뤄진 현수교(길이 1.75km-2공구)와 1004개 섬을 상징하는 1004m의 사장교(1공구), 목포에서 거처지 않고 신의왕까지 바로 연결해 소요시간이 60분에서 20분으로 단축. F1 대회 기간 교통량 감소 및 인근 산단의 불투명해 집합 효과 기대. 올 해 상반기 개통 예정.

### 완도대교

완도군 군외면 불벽리에서 완도리를 잇는 사장교로, 총 연장(8.35km-4차로) 중 해상교량 구간은 332m. 2009년 6월 공사에 들어가 교역로 제외된 구간(6km)은 지난해 5월 개통됐고 나머지 구간(2.35km)은 올 7월 준공 예정.

총 7일만 1570억으로, 제주에서 완도를 거쳐 대도 이어로드에도 연결. 해양 관광에 도움이 될 전망.

### 진도대교

지난 1984년 10월 18일 준공된 진도군 근래면 녹진(龍津)과 해남면 근래면 학동(鶴洞)을 잇는 다리(길이 454m·폭 11.7m). 대한민국 최초의 사장교(해상 교량)로, 국내 해상교량 가운데 최초로 자전거·보행자 도로(1층)와 자동차 전용도로(2층)를 구별해 시공. 5000kg 화물선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됐다.

### 거금대교

고흥군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 길이 2028m(사장교 1116m, 접속교 912m), 중앙 부분에 높이 167.5m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탑 2개를 케이블로 연결한 사장교. 국내 해상교량 가운데 최초로 자전거·보행자 도로(1층)와 자동차 전용도로(2층)를 구별해 시공. 5000kg 화물선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됐다.

### 하의·신의 연도교

신안군 하의면 봉도리부터 신의면 하해리까지 연결되며 교량(550m)을 포함한 총 연장은 1.38km. 길 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향으로, 생가(生家)가 있는 하의도(荷衣島)와 연결되는 연도교(漣島橋)로, 지난해 2009년부터 매년 국비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확보하지 못해 급기야 전남도가 지방채를 발행, 우선 사업을 착수했다. 2015년 준공 예정.

### 화양·조발·둔병·남도대교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와 화정면 적금리 구간을 연결하는 '화양~적금 도로건설 공사'에 포함되는 4개의 해상교량. '세계 다리박물관'계획에 포함된 다리 4개가 완공되는 2019년이면 고흥 영남에서 여수까지 남도~둔병도~조발도~화양면까지 연결과 거리가 110~200km·시간(1시간22분~15분)이 단축된다. (사진은 조발대교)

### 백야대교

여수~ 고흥반도를 잇는 11개 연륙·연도교 사업 중 유일하게 준공된 다리. 바다를 사이에 둔 화양면 안포리와 화정면 백야리를 연결하는 길이 325m, 폭 12m 규모다. 국내 최초로 넓은 아치형(주탑높이 45미터) 상부를 지탱하는 주탑 2개가 모양이 동일하게 건설됐으며 전남도의 여수~ 고흥반도를 잇는 '세계적 다리박물관'계획에 포함돼 있다.

## 자유투어

www.jaUtour.com | 062)371-3757

### 중국

[부의 도시] 곤명/석림/구양둥굴 5일/6일 499,000원

[홍콩/마카오] 홍콩/마카오여행 4일/5일 599,000원

[베트남] 방콕/하노이 4일/5일 399,000원

[대만] 타이베이/타이핑 4일/5일 429,000원

[싱가포르] 싱가포르/자카르타/호찌민 4일/5일 499,000원

### 일본

[후쿠오카] 후쿠오카/아사히/후쿠오카 4일/5일 199,000원

[후쿠오카] 후쿠오카/아사히/후쿠오카 4일/5일 199,000원

[후쿠오카] 후쿠오카/아사히/후쿠오카 4일/5일 199,000원

### 미주

[하와이+미서부] 하와이+미서부 11일 1,790,000원

[미서부] 미서부 3대도시+3대캐년 8일 139,000원

[하와이] 하와이 일주 5일/6일 98,000원

[캐나다] 캐나다 항공일주 8일 179,000원

### 유럽

[서유럽] 서유럽 6국 12일 3,090,000원

[동유럽] 동유럽 5국 10일 1,779,000원

[노르딕] 노르딕 4국/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9일/10일 1,590,000원

### 호주 뉴질랜드

[호주] 호주 4일/5일 799,000원

[뉴질랜드] 뉴질랜드 8일 1,990,000원

### 동남아

[캄보디아(안코르와트)] 캄보디아(안코르와트) 5일 849,000원

[태국] 태국 4일/5일 499,000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4일/5일 499,000원

## 어서오십시오!

목포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역사문화가 많은 곳입니다.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대포의사

예약/상담: 부구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3300, 동구점 227-8255, 남구점 382-5353, 청단점 233-2627, 총장점 222-9796, 하남점 954-9700, 광천점 350-6226